

대장·직장암의 근치적 수술 후 대장 용종 발생의 예측인자

원주의대 소화기내과 서정인*·김현수·김문영·정필호·백순구·이동기·권상욱

대장·직장암은 유전적 변형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용종성 선종에서 발생하며, 종양 유전자나 억제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상피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장·직장암 환자에서 수술 후 발생한 대장 용종의 양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자들은 대장·직장암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 후 발생한 용종성 병변의 양상과 발생 예측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95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본원에서 대장·직장암으로 진단 후 근치적 수술을 받은 환자 282명 추적 대장내시경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수술적 치료 전후의 원발암과 용종의 위치, 크기, 세포 분화도 및 조직소견, 항암화학요법 시행유무, 추적 기간 등 임상병리학적으 구분하였고 수술 후 용종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체 대상 환자 중 추적 대장 내시경은 93명에서 시행하였고 수술 후 추적검사까지의 평균기간은 20.8 ± 15.4 개월(5-88)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53명 (57%), 여자가 40명 (43%)이었고, 평균 연령은 55.4 ± 11.9 세 (29-82)였다. 좌측 대장암(직장-비장간곡부)이 40예 (43%)였고 우측 대장(횡행 결장-맹장)이 53예 (57%)였다. 병기는 A기 1예 (1.1%), B1기 10예 (10.8%), B2기 17예 (18.3%), C1기 20예 (21.5%), C2기 42예 (45.2%), D기 3예 (3.2%)였다. 대장내시경과 바리움 조영술에서 대장·직장암 진단 당시 26예 (28%)에서 용종이 동반되었다. 항암화학요법을 66예 (71%)에서 시행하였고, 추적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직장암이 재발된 경우는 6예 (6.5%)였으며, 용종은 21예 (22.6%)에서 관찰되었으며, 1cm 미만의 용종이 90.5%, 관상 용종이 90.2%였다. 추적 검사에서 용종의 유무에 따른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 결과 처음 진단시 용종이 동반된 군과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군에서 용종의 발생율이 높았다 ($p < 0.05$). 대장·직장암 진단시 동반 용종의 위치, 크기와 병리 소견, 그리고, 진단시 병기와 수술 후 추적 기간은 대장암의 수술 후 용종 발생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근치적 수술 후 발생한 대장 용종은 대장·직장암 진단시 용종이 동반된 군과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군에서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환자에서 단기간의 추적 대장 내시경과 대장 용종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대장암 AJCC 제 II 병기에서 cyclin E, p53, p27의 발현과 예후인자로서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과학교실, 진단병리과*

임윤정 · 김주성 · 김영호 · 김홍주 · 장우영* · 손희정 · 이종렬 · 김재준 · 고광철 · 백승운 · 이종철 · 최규완

목적: 대장암은 유전자의 변화의 축적으로 생긴다. 세포주기 진행에 관여하는 cyclin E와 종양 억제자인 p53, p27의 발현이 대장암의 병기가 진행될수록 cyclin E, 변이 p53이 많이 발현되고, p27의 발현이 감소되어 cyclin E, p53, p27이 대장암의 예후 인자로서의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대장암 중 AJCC 제 2 병기에 해당하는 군은 다른 병기군에 비해 다양한 예후를 보이고 있어, AJCC 제 2 병기에서 cyclin E, p53, p27의 발현이 재발 및 생존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삼성서울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후 AJCC 제 II병기로 진단받고 보존적 항암치료 등을 받지 않은 41명을 대상으로 p53 (Zymed사, 1:80), p27 (Transduction laboratory, 1:800), cyclin E (Novocastra, 1:20) 을 일차항체로 사용하여 면역조직화적 검사를 시행하여 그 발현과 임상적, 병리학적 특성, 재발, 생존율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성적: 대상 환자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63개월이었고 재발율은 24.4%이었다. cyclin E, 변이 p53, p27사이의 서로간의 상관 관계는 없었으며 cyclin E, 변이 p53, p27의 발현 정도는 종양의 크기, 분화도, 위치, CEA level, 재발, 생존율에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대장암 AJCC 제 2 병기에서 다양한 예후를 예측하는데 cyclin E, p53, p27은 유용하지 못한 지표였다.